

## News

### 청년층 LTV 90% 는 와전된 것...금융당국, 이르면 이달내 LTV 70% 정책 발표

파이낸셜뉴스

정치권 여당측이 최근 언급된 'LTV90% 설'을 와전이라고 밝히 청년층·신혼부부에 주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치가 70% 안팎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풀이  
금융권에선 이들면 이달 안에 청년층·신혼부부 LTV 완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

### 금융판 이익공유제 시동? 은행 보험 2000억 낸다

매일경제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을 내야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개별 금융사의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 0.03%를 곱한 만큼 출연금을 산정하는 방안이 유력. 서민금융진흥원은 2,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비은행 사업 키우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증권·보험사 '눈독'

이데일리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21일 우리금융캐피탈(옛 아주캐피탈)을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결의

지난 3월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지주 자회사 이전, 프랭클린템플턴의 국내 펀드업 인수 등 사업 포트폴리오 효율성을 제고. 증권서와 보험사 M&A도 목표할 것으로 기대

### 6월 끝나는 은행 배당제한, 당국 다시 테스트한다..."강도는 낮을듯"

뉴스1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30일 끝나는 은행권에 대한 배당 제한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준비

지난 1월과 같은 형식의 스트레스테스트일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당시와 달라진 코로나19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반영해 비교. 이에 대부분 테스트를 통과할 전망

### 중기특화증권사, IPO 시장서도 존재감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SK증권 등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6곳의 상장주관 실적이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증권사들에 밀려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형사들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33개사(스팩 제외) 중 29개 기업의 상장 주관 업무를 맡았다.

### 삼성생명 즉시연금 공방 첨예…소송 판결 지연되나

한국금융신문

즉시연금 지급을 둔 삼성생명과가입자 간 소송이 지난 21일 재개된 가운데, 재판부가 또다시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 삼성생명에서 추가로 변론을 요청해서다.

재판부는 "충분한 변론 기일을 가지려고 한다. 추가 변론 기일은 6월 16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 손보사는 집콕에, 생보사는 AI에… 보험사, 민원 줄었다

파이낸셜뉴스

손보사 17개사의 올해 1분기 민원건수는 9278건으로 전분기(9484건) 대비 2.2% 줄어들었고, 생명보험사 24개사의 민원건수도 6713건에서 6392건으로 4.8% 감소

손해보험사는 코로나19으로 인해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면서 자동차보험 민원이 감소. 생명보험사는 A)를 보험 심사에 활용하면서 보험비 지급기일이 빨라진 데 기인

### "다시 때가 왔다"…숨죽이던 리츠들, 줄줄이 상장 '속도전'

한국경제

리츠(REITs)들이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상장 준비 가속화. 종시 상승세가 꺽이면서 리츠를 비롯한 배당주 투자심리가 살아나자 서둘러 증시 입성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

디앤플랫폼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NH올원리츠을 비롯해 올 하반기에만 5개가 넘는 리츠가 연이어 상장할 전망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